



친환경 농업특구 팔당생명살림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바다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면, 강은 늘 바다와 닿아 있지만 산에서 불길이 트여 강은 핏줄이 되어 흘러 흘러서 어머니에게로 간다.

우리나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기준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일컫어 4대강 수계라 부른다. 4대강 수계에는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의 식수원으로 공급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규제와 불편을 가져다주었다. 심지어는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 외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여전히 4대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린벨트, 수질 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 등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하여 농지가 줄어들고, 특정한 분야(축산 등)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 되어 불편을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충청권의 대표적인 식수원은 대청호이다. 대청호는 금강의 물줄기에서 만든 인공 댐이다.

대청호는 1975년 공사 착공을 하여 1980년 완공된 호수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세 번째

큰 규모이며 저수량 약 15억톤을 저장하는 충청민의 생명의 젓줄이다. 대청호는 금강의 발원지인 전북 장수군 장수읍 뜰봉샘에서 발원하여, 진안의 마이산과 무주의 덕유산 지류를 만나 용담댐을 거쳐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을 거쳐 청원군과 대전광역시 사이에 호수를 이룬다. 이후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전라북도 군산시에 이르러 400리길을 마감하고 서해안으로 들어간다.

대청호는 400만 충청민의 소중한 식수원이지만 특히 대청호 상류에 사는 주민에게는 많은 불편한 규제를 가해왔고, 그에 따른

민관의 지원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유역 주민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한다. 도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에 따라 물이용 분담금(2006년기준 톤당 160원)을 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금강수계에서 조성된 금액은 약 8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어렵고, 점점 더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이 WTO, FTA 등 대외 개방으로, 그리고 농업정책의 실패로 우리 나라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음은 물론, 여기에 4대강 유



대청호 청남대

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규제에 의한 어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또한 적은 돈이 아닌 물이용 분담금도 농민들의 소득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되기를 부탁하고 싶다. 왜냐하면 수질오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점 오염이며, 이 비점 오염에서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와 농약이기 때문이다.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업 생산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어렵게 지은 농산물이 판로가 없어 창고에 쌓이고, 심지어 비료와 농약으로 생산된 일반 농산물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금강수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사주는 특단의 노력 없이는 금강의 수질 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관료들은 자기분야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주말농장 간판

너무 잘한다. 그러나 부처(서)간의 협조나 인접 분야의 업무는 미루거나 기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다루는 것은 농림부나 지방자치단체 일이라는 단순한 사고를 하고 있다. 물과 농업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에 벗어나야 우리 산하, 우리 강이 깨끗해 질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싶다. 더불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이용하고 싶다.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정책이 아쉽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깨끗한 물줄기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시로, 강으로 흘러 생명의 바다로 가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팔당생명살림'을 찾았다. 양평으로 들어와 우리는 먼저 송촌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안내되었다. 송촌 친환경 주말농장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바로 곁에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남양주시, 양평군의 협조를 얻어 곳곳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송촌 친환경 주말농장에서 우리는 '팔당생명살림(생협)'의 정영기 교육팀장으로부터

'팔당생명살림'의 지역 순환형 사회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였다. '팔당생명살림'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팔당호는 처음에 발전용 댐으로 1973년에 만들어 약 2억4천만톤의 물을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후 1975년에 상수원보호구역, 19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앞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가 시작되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집을 늘리는 것도 허용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숨죽여 살았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그 동안 쌓였던 불만이 서서히 드러나 그동안 받은 고통과 피해, 앞으로 다가올 규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범 주민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1994년 팔당상수원 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탄생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양평군민회관에서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팔당상수원 보호와 피해주민 생계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당시 환경처에서 관철시키려던 토지선매권을 유보시켰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포획업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여 1998년 7월1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허가를 내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다. 이후 공대위는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생태영농 탐방

팔당댐 근처에 있는 취수구를 북한강쪽으로 올리고 규제를 풀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개발론자와 친환경론자 사이에 견해 차이와 반목으로 갈라져서 친환경 농민 중심의 유기농업 실천인 20여명이 모여 '팔당생명살림(구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을 1995년12월12일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팔당생명살림'에서는 팔당호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팔당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에 올리고, 농업중앙회와 함께 팔당호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유기농업 육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당시 서울 시장인 최병렬 서울시장과 원철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협약을 맺어 서울시와 농협중앙회의 팔당상수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기본계획으로 2천5백 가구에 4천만원씩 1천억원을 연리5%로 농협에서 빌려주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5% 이자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조건이었다. 유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판매해 주며, 각 구청마다 1개의 판매장(약100평)을 개설하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환경농업과



팔당생명살림 매장



팔당생명살림 생산농가

가 신설되었으며, 서울시는 가락동에 219평의 물류센터를 차리고 준비에 임했으나, 당시 가락동 유통공사측이 계약을 파기하고 적극적인 판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유기농산물 판로가 막혀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다 농작물을 신고 상경, 서울시와 농협을 상대로 시위를 하였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유통경험이 없는 서울시와 농협이 판매를 담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이후

평가 내용이다. 이후 정농생협이 가락동물류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제안으로 정농생협과 '팔당생명살림' 이공동출자하여 최초 유기농산물 유통회사인 (주)새농을 만들었으나, 가락동 직판상인들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혀 사업부진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팔당생명살림' 이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하고 정농생협과 새농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새농은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고, 서울

생태영농 탐방

시와 농협중앙회가 지원하였던 서울시 판매장과 농협하나로클럽의 팔당상수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에 대한 위탁운영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일구어 냈으며, 팔당지역의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새농이 자본증자를 하면서 팔당을 비롯한 제 단체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새농의 대표이사과 대주주의 경영독점에 따라 새농과 팔당생명살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팔당생명살림은 2001년 3월

지역내 소비자 확대를 도모하고, 생산자, 소비자 교류 확대를 위해 팔당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지역 남양주, 구리, 하남, 양평, 서울동부 등 너무 넓어 물류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어려움을 겪어 영농조합에서 사무국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영농조합과 생협의 발전적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2002년 3월 31일 '팔당생명살림연대'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게 된다. 이후 2003년 9월 '팔당생명살림연대'는 새농과



팔당댐 두물머리

결별하게 된다. 또한 생협의 조합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1000여명이 넘고, 매출액이 급증 하면서 업무의 복잡성, 각 부분의 업무 집중성이 요구되면서 2004년 3월 31일 2여년의 통합운동을 정리하고, 생협과 영농조합, 그리고 협의기구인 사단법인으로 조직분화를 이루게 된다. 생산자조합인 영농조합법인 팔당생명살림과 소비자조합인 팔당생명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지역내 비영리사업과 대외홍보사업 그리고 두 단체의 협의역할을 전담하는 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농조합은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촌공동체 회복운동과 생산, 유통,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협은 소비자 조직으로서 도시지역 공동체 회복운동, 소비자교육, 조직,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팔당생명살림’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1. 소모임 활동

축구모임, 수요공부방, 풍물모임, 등산모임, 영화모임, 여성위원회(스포츠댄스, 명상요가 등)

2. 풀씨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양한 놀이와 생태적 교육-이후 대안 학교 모색

3. 심경일

전체회원이 참여하는 행사, 교육-매주 금요일 진행

유통구조상 설, 추석 2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하가 이루어져 심경일 지정

4. 상조회

상호부조와 두레 전통계승-장학사업, 대출사업 등 장기적으로 실험 모색

5. 지역환원사업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적립하여 장학사업전개, 복지시설에 잉여농산물 기부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는 모금으로 전달

6. 주요행사

도농교류 소비자견학 행사(4월-11월 월평균 300명)

농촌사랑 어린이날 축제(5월)

어린이생명학교(8월/12월)

팔당상수원 유기농산물 추수축제(10월)

생산자와소비자가 함께하는 송년회의 밤(12월)

7. 교육

회원수련회, 회원선진지 견학, 품목별 기술교육, 임원리더쉽교육, 실무자워크샵

여성위원회 교양교육, 기관지 발행 및 홈페이지관리 등

‘팔당생명살림’은 2007년 4월 기준 생협



팔당댐

조합원 2000여 기구, 영농조합 104기구 등 규모면에서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물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근접성 특히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팔당댐과 산 등 수려한 자연조건을 가진 양평군이 만들어 낸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팔당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 일 것이다. 자연이 주는 조건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 사회이다. '팔당생명살림'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정상묵, 정상일, 김병수, 권호균 등 선배 영농인들의 땀과 눈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오늘날 '팔당생명살림'이 6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나타내고, 젊은 귀농인들이 들어오기까지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박종서(사무국장), 정영기(교육팀장) 등 젊은 그들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이겨내야 한다. 그동안 '팔당생명살림'의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해 주던 하나로클럽 등에 대한 계약 만료로 인해 직판장을 농협에 넘겨주면 이제부터는 유기농산물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 또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생협외 회원

이나 매장을 확대하든지,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에 도전하는 것이다. 사람은 먹는 것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안 먹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점차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변경하고 있다. 무엇보다 '팔당생명살림'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소득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찾는다는 것이다. '팔당생명살림'의 매장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실천을 하는지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깨끗한 매장, 싱싱한 농산물, 친절한 도우미, 나눔 장터(녹색가게)에서 자원봉사자, 팔당생명살림매장을 보면서 2004년에 방문했던 독일의 '바육농장'이 생각났다. 독일 북부 도시 튀베크에서 남쪽으로 승용차로 2시간 이상 달려서 간 시골 마을 '바육농장'은 주로 소와 닭을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농장을 둘러보고, 판매장을 보았다. 판매장은 너무나 깨끗했고, 정돈이 잘 되었다. 누가 이런 시골 마을에 온다고 저렇게 잘 해 놓았을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농장

주인은 누가 오든 아니 오든 상관없다며, 여기서 포장하여 고객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언제든 고객들이 와서 오늘처럼 여러분과 같이 본다는 것이다. 농업은 역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오늘 팔당생명살림매장이 그러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운동은 단순히 몇 푼 지어주는 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이 되도록 친환경 농업 판로에서 이제 찾아야 한다. 판로와 적정 가격만 보장된다면 하지 말래도 친환경 농업 하겠다는 농민의 절절한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금강유역청, 충남북 농협은 팔당유역에서 함께한 민관의 노력을 우리지역, 금강유역에서도 일으켜 금강에서 사는 것이 지역주민의 자랑이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도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기나긴 400리 길 쉽 없이 흘러가는 금강에 물고기가 뛰놀고, 사라져간 동식물이 다시 오도록 금강 주변의 농업지대를 친환경 농업지대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Ⅳ 연 · 락 · 처 Ⅳ

팔당생명살림 031-577-8021 정영기 교육팀장, 박종서 사무국장
www.psss.or.kr